



B O A R D O F S T U D I E S
NEW SOUTH WALES

2010

**HIGHER SCHOOL CERTIFICATE
EXAMINATION**

Korean Background Speakers (Section I — Listening and Responding Part A and Part B)

Transcript

Familiarisation Text

기자: 이러한 채팅 언어의 사용을 십대의 문화 현상으로 보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 채팅 언어 때문에 세대 간에 대화가 잘 안되고 또 채팅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잘못된 문화 현상이라고 봅니다.

Section I — Listening and Responding

Part A

Question 1

교육방송: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여행

안녕하세요? 학부모 여러분! 오늘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여행'시간에는 요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는 굴포천을 소개하려 합니다.

'건강여행'이 요즘 트렌드라고 하지요? '걷기 여행'이나 '자연생태 환경여행'이 유행하는 이유는 몸의 건강 뿐 아니라 정신건강에까지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한 번 떠난 나들이에서 걷기와 자연생태 환경여행까지 동시에 즐길 수는 없을까요?

만약 이런 여행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굴포천을 찾아가 보세요. 그 곳에서는 죽어가던 하천이 되살아난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 할수 있고 하천 길을 따라 가벼운 트래킹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수구에서 흘러드는 더러운 물이 하천의 물과 섞이지 않게 하였으며, 오염된 강바닥을 파내어 자연형 생태 하천으로 거듭난 명소가 되었답니다. 굴포천은 서울의 청계천과 여러 면에서 많이 닮아 있습니다.

청계천은 죽어가던 하천에 생명을 불어 넣어서 명소가 되었습니다. 굴포천 역시 물이 깨끗해지고 더불어 주변경관도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되고 편의 시설까지 갖추어 지면서 새로운 명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물이 맑았던 시절에는 맹꽁이 서식지로 보호 받던 지역이기도 했던 굴포천. 이 연못에 여러 종류의 수생식물을 심어 자연스럽게 정화 능력을 갖춘 생태연못이 되도록 했다는군요.

하천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곳곳에서 자연친화적인 요소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시멘트 블록을 모두 걷어 내고 나무판을 설치해 물억새를 자라게 하여 물고기와 양서류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했구요. 다리를 통과하면 풍력 발전소를 닮은 대형 바람개비가 돌고 있는데 그 옆엔 환경역사 박물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꼭 찾아야 할 교육의 현장이죠.

최근에는 잉어, 붕어등의 어류와 황새, 물총새, 떼까치와 같은 조류, 그리고 각종 식물들이 어우러져 마음껏 깨끗한 자연을 즐기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삭막한 도시 속에 버려질 뻔한 환경이 아름다운 생태습지로 거듭난 모습이죠.

자, 이번 주말 가족 나들이는 굴포천이 어떠신지요? 지금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여행'이었습니다.

Section I — Listening and Responding

Part B

Question 2, Text 1

교민 방송 코리아 TV입니다. 한국 청소년 야간 통행금지법 제정에 관한 보도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강도, 살인등 강력 범죄중 청소년 범죄가 거의 과반수를 차지 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범죄와 비행을 줄이기 위해 국회에서는 청소년 야간 통행금지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탈선과 범죄 예방은 사회적 안전보다는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더 필요합니다. 경찰이 밤늦게 대학가 주변이나 유흥가를 순찰하다 보면 많은 청소년들의 낮 뜨겁고 민망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출입을 막기 위한 미성년자 보호법이 있긴하지만, 여러 업소에서 이를 어기고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를 팔면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대다수의 도시에서 청소년 야간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방학 기간 중에는 밤 12시, 평일에는 11시 이후의 청소년 통행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제기한 위헌 심판 청구 소송을 이유 없다고 기각함으로써 이 제도의 정당성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한편 한국내 여론 조사에 의하면 중학생 부모의 83%, 고등학생 부모의 73%가 통행금지 실시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1년에 1번 이상 자신의 자녀를 위해 야간에 자원 봉사도 직접 참여하겠다는 적극성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학부모들의 모습을 보면 실제로 자녀들이 폭력배에 의해 받을 피해에 대한 공포와 음란, 퇴폐 환경이 가져다 줄 정서적 피해에 대해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ection I — Listening and Responding

Part B

Question 2, Text 2

아름: 민수야, 너 지금 방송한 내용 들었지?

민수: 응.

아름: 정말 웃기지 않니? 우리가 무얼 잘못했다고 밤에 못다니게 하는 법을 만드냐고.

민수: 아름아, 그게 아니고, 그런 법을 만드는 이유는 밤거리 폭력이나 문란한 밤문화로 부터 우리들을 보호 하자는 거라잖아.

아름: 그렇다고 밤에 청소년들을 절대로 못나가게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말도 안돼. 밤 외출할때는 우리 스스로 조심하고, 또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같이 외출하면 되잖아?

민수: 어떤 때는 나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친구들이 자꾸 나오라니까 할 수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었어... 그러니까 법으로 외출을 막아주면 좋잖아.

아름: 법으로 밤외출을 강제로 막으면 우리같이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은 밤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더 생겨. 그래서 결국 ID까지 위조하기도 하잖아...

민수: 그래도 우리가 밤에 외출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또 학교 숙제나 공부할 시간도 많아지니까 좋을 거 같은데...

아름: 아이구...그건 너같은 범생이나 하는 소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해. 낮문화건 밤문화건 모든 것이 좋고 나쁜 면이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숨긴다고 우리가 모를거 같애? 맘만 먹으면 인터넷도 있고... 친구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민수: 우리 부모님들도 자원 봉사까지 하시면서 청소년 야간 통금법을 지지하신다잖아?

아름: 어쨌든 나는 이렇게 법을 만들고 강제적으로 '너희들은 밤에 나가지 마' 하면 훨씬 더 나가고 싶더라...